**합격은 강한 자신감, 굳은 의지, 피나는 노력 삼박자로 이루어진다.**

1. **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하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도 51회 공인회계사시험에 동차 합격한 황인성이라고 합니다. 2014년도 처음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합격자 발표가 난 후 지금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시험에 관련해서 여러 도움과 조언을 주고 받으면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합격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방법만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쓰는 합격수기를 읽고 자신에게 맞는 것은 취하고 잘 안 맞는 것들은 참고만 해주시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수험생활 이야기**

-2014년 1월 ~ 2015년 2월 : 자격요건(학점, 영어성적)취득과 기본개념배우기 (군복무)

-2015년 2월 15일 : 2015년 50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응시 총점 304.5 (불합격)

-2015년 3월 ~ 2015년 9월 : 기본개념의 복습시간

-2015년 10월 ~ 2016년 1월 : 나무경영아카데미 1차 종합반

-2016년 1월 ~ 2016년 2월 : 학원종강 후 1차 시험 준비 (도서관)

-2016년 2월 28일 : 2016년 51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응시 총점 441 (합격)

-2016년 3월 ~ 2016년 6월 : 나무경영아카데미 2차 동차반

-2016년 6월 ~ 2차시험직전 : 학원종강 후 2차 시험 준비 (도서관)

-2016년 6월 25~26일 : 2016년 51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 응시 (합격)

1. 2014년 1월 ~ 2015년 2월 : 자격요건(학점, 영어성적)취득과 기본개념배우기 (군복무)

제가 처음 CPA공부에 입문하게 된 곳은 군대였습니다. 경제학과에 다니고는 있었지만 회계에는 정말 문외한이었고, 군대에서 시간을 허비하기 싫어서 상경계열 자격증을 알아보던 중에 공인회계사시험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CPA시험은 1차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회계 12학점, 경영 9학점, 경제 3학점이수 및 공인영어점수가 일정조건 이상 필요한데 저는 경제 3학점 말고는 하나도 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점은행에서 학점을 이수함과 동시에 PMP로 나무경영아카데미 기본개념 인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영어점수를 얻기 위해 6월에는 토익을 시험 봐서 기준을 맞추었습니다. 일반적인 대학생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리 높은 기준은 아니라 1~2달 신경 쓰시면 기준은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대라는 특수한 수험상황 때문에 인터넷으로 꼭 필수시간을 채워야 하는 학점은행으로 학점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시간도 많이 허비했습니다. 1차 시험 서류접수 1달전에야 겨우 다 학점을 채웠습니다. 물론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님들의 옛날강의들이 학점은행 강의로 올라와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 범위를 포함하는 것도 아니고 최신강의는 아니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또 강의를 수강해야 했습니다. **만일 아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수험생 분들은 학점이나 영어성적은 미리미리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학점은 본인 대학교 강의로 미리미리 수강하는 것이 시간적, 금전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공군에 복무를 해서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평일에는 하루에 3시간~4시간, 주말에는 10시간정도 공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훈련 같은 상황이 터지면 1, 2주일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2015년 2월초가 되어서야 모든 과목 개념강의를 한번씩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식 강의는 도저히 들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교재만 따로 주문해서 약한 부분, 중요부분만 문제를 추려서 겨우 풀고 2015년 1차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2) 2015년 2월 15일 : 2015년 50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응시 총점 304.5 (불합격)

아직 군복무중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 모은 휴가를 전부 써서 2주정도 사회에 나가 시험까지 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개념만 겨우 끝낸 상태였고, 군인의 신분으로는 자유롭게 시험을 보기도 힘들었던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무리해서 **1차시험에 응시한 이유는 1.현장경험, 2.시험에 대한 자신감상승, 3.자신의 실력에 대한 점검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1차시험 준비가 완벽히 안되었다고 1차시험을 안보는 수험생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1차시험은 준비가 되었든 안되었든 시험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능시험도 예비소집일 날 고사장을 방문하여 현장경험을 쌓았던 것처럼, 비록 실력이 아직 완성이 안되었다고 해도 응시했다는 경험자체만으로도 다음 번 시험에 대한 긴장감도 덜하고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 다음 번 1차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문제집, 강의로만 문제를 풀다 보면 수험생 분들은 시험이 걱정도 되고 어려울 것이라고 난이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접 시험지를 받아 풀게 되면 생각만큼 시험이 엄청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교재에 실려있는 것에서 대부분이 나온다는 것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시간 노력으로 점수는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 계획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과목 과락은 없었지만 총점 60%를 넘지 못하여 불합격했지만 저에게는 2016년 동차합격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3) 2015년 3월 ~ 2015년 9월 : 기본개념의 복습시간

1차시험에 당연히 떨어질 줄은 알았지만 막상 직접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니 공부의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전역하기 전까지는 2차강의 재무회계, 세법 2과목을 신청은 해놓았지만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역하고 나서 2학년 2학기 복학을 두고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개념은 한번 들었으니 학교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하고 방학 때 2달 열심히 하는 것과, 그냥 휴학을 하고 10월 나무 객관식 1차 종합반을 들으며 준비하는 것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전역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복학을 했기 때문에 홀로 휴학을 하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복학을 하면 학교적응, 학점관리도 해야 했기 때문에 CPA공부는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휴학을 하고 1차 종합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1년정도의 휴학은 이 정도의 난이도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몇몇 수재들을 제외하고는 학교와 시험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4) 2015년 10월 ~ 2016년 1월 : 나무경영아카데미 1차 종합반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구리시여서 나무경영아카데미학원까지 오는 시간은 1시간정도 걸렸습니다. 학원 다니기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학원실강을 신청한 이유는 1 높은 강의 전달력, 2 규칙적인 생활가능 3 정보교류 및 자기실력점검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인터넷 강의만 들어서 인터넷강의가 많이 익숙한 저였지만, 실강을 처음 들어본 순간 확실히 인터넷강의보다 내용전달이 더 잘되는 느낌을 받았고 집중도 더 잘됐습니다. 또한 전역 후 8월, 9월을 혼자 도서관을 다니며 공부를 해본 결과, 혼자 규칙적인 수험생활을 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다니면서 출석체크 스터디를 같이한다면 규칙적인 수험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초반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주는데, 잘 이용하면 수험생활의 든든한 동반자, 많은 수험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꼭 스터디를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1~2주마다 보는 학원 모의고사는 중간중간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고, 상위 몇 명은 이름도 공개하기 때문에 자극도 많이 돼서 좋았습니다**.

학원을 다녔을 때 저의 생활은 월~금까지는 6시반 기상해서 8시까지 학원에 가서 오후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12시에 자는 생활이었습니다. 토요일은 보통 오전수업만 있기 때문에 오전수업 끝나고 5~6시정도까지 복습을 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일요일은 시험 1달전까지는 그냥 하루 종일 푹 쉬었습니다. 시험이 1달 남지 않았을 때부터는 토요일과 같이 6시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쉬었습니다. 저는 잠이 많은 편이고, 쉴 땐 쉬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성격이라 이런 생활패턴으로 2차때까지 꾸준히 지켰습니다. 생활패턴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차이가 많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했던 방법은 오전수업 전, 식사시간, 쉬는 시간에는 피곤할 때는 낮잠을 잠깐 자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과목별로 외워야 할 공식이나 잘 안 외워지는 이론들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복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보충이나 특강, 모의고사 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그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학원까지 1시간정도 되는 짧지 않은 이동시간은 과목별 암기노트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활용했습니다. 학원수업을 들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지켰던 원칙은 ‘수업은 절대 빠지지 말자’ 였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불가피하게 못 오는 일도 생길 수 있지만 평범한 수험생분들에게는 순전히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원강의기간조차도 수업을 빠지는 의지라면 학원이 종강하고 혼자 시험 전까지 공부해야 될 1~2달의 생활은 더욱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1차, 2차 모두 출석체크 스터디에 참여했는데, 1차 2차 스터디 모두 유일하게 결석이 없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저의 합격의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100% 출석을 하는 것과 같은 강한 의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5) 2016년 1월 ~ 2016년 2월 : 학원종강 후 1차 시험 준비 (도서관)

1월초에 기본정규강의를 비롯한 보충강의도 모두 끝난 시점 저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험이 2달남짓 남으니 하루에 2시간정도의 이동시간이 부담이 되기도 했고 체력도 많이 소진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부장소를 집 근처 도서관으로 옮기고 짧아진 이동시간을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잠을 좀더 자고 공부시간을 늘렸습니다. 매일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도서관에 가서 오후 10시반까지 공부를 하고 12시에 잠에 들었습니다. 1차 시험대비는 학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모르는 것 중심으로 복습하면서 회독 수를 늘렸고 아는 것은 제외하고 모르는 것만 복습하면서 복습양도 점차 줄여갔습니다. 그래서 시험 마지막 1주전에는 1~2일에 전과목을 복습할 정도까지 내용을 줄였습니다.

시험을 2주앞두고 저의 수험기간 중에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바로 우울증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도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었는데 학원이 종강하고 혼자 공부를 2달정도 하다 보니 우울증이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운이 없고 식욕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고3때도 겪어보지 못한 증상이라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이니 우울증 때문에 공부가 안되면 안될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고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수면제도 먹어보려고 했으나 부작용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잠은 설치고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힘든 일을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삭히는 성격이라 이번에도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3일, 4일정도 고생하다 결국엔 부모님, 친한 친구들에게 저의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시험이 코앞이었지만 공부시간을 오히려 줄이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가족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들과도 연락을 잘 안하고 지냈는데, 전화도하고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 또 우울증에 좋다는 아로마향을 머리맡에 놓고 자기도 하고, 깨어있을 때 의도적으로 햇빛을 받으며 산책도하고 스트레칭도 더 자주하고 우울증에 좋다는 건 모조리 찾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시험 일주일전부터는 서서히 좋아져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1차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 분들도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학원 종강 후 같이 공부할 친구들이나 적합한 공부장소를 잘 선택하길 바랍니다**.

(6) 2016년 2월 28일 : 2016년 51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응시 총점 441 (합격)

2015년도에 1차시험을 한번 본 저는 긴장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1차시험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합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1차시험을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것이 2차공부를 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차때도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휴학을 한 수험생분들은 보통 1차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봄 1학기를 등록을 해놓고 결과에 따라 학교를 복학할지 휴학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1차 합격여부는 보통 3월말쯤에 발표를 해주는데 3~4년전 회계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기본조건인 과락이 없이 총점이 60%만 넘었다면 실질적인 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15년, 2016년 회계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330을 훌쩍 넘은 300 중 후반 점수가 커트라인으로 정해질뿐더러 발표 전 회계동아리 같은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 커트라인 점수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발표 전까지는 합격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0은 넘었지만 예상 커트라인 근방에 있는 수험생들은 확신을 갖고 2차공부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3월 발표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 보내기 쉽습니다. 2차 공부는 4달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5과목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1차때와는 달리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월의 발표 전 시간도 소중하게 써야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7) 2016년 3월 ~ 2016년 6월 : 나무경영아카데미 2차 동차반

2차 동차 종합반은 2차준비시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시험이 끝난 다음주에 바로 개강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상 커트라인 보다 높은 점수였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개강일 날부터 학원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차수업은 1차때와는 달리 수업강도도 높고, 내용난이도도 높고, 보충도 초반부터 많이 잡히기 때문에 학원수업 듣고 복습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 게 느껴지는 힘든 수험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진도가 나가지 않아 비교적 한가한 3월에 열심히 공부를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동시간, 점심시간 등 남는 시간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1차때는 학원종강 후에도 2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2차때는 학원 종강 후 3주쯤 되는 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전과목 2회독 하기도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1과목 정도를 포기하고 4과목만을 공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5과목을 불안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4과목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 뭐가 좋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엄청난 부담이 있지 않는 이상은 5과목을 다 공부해서 가는 것이 최대한 많은 과목을 붙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1과목을 포기하는 순간 5과목을 동시에 공부할 때보다는 압박이 덜하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시간활용도면에서 능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과목별로 난이도가 크게 변동하는 편이라 혹시라도 쉽게 나온 과목을 포기한 상태라면 엄청난 손해가 될 것입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법이 엄청 쉽게 나왔는데, 세법시험시간이 끝난 후 세법이 엄청 쉬웠는데 버렸다며 우는 수험생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무리 동차라도 3월부터 시험 전까지 자신의 최대한의 노력을 쏟는다면 5과목을 60점넘기는게 불가능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 2016년 6월 ~ 2차시험직전 : 학원종강 후 2차 시험 준비 (도서관)

학원종강이 다가올수록 저는 고민이 엄청 많았습니다. 1차때 혼자 그렇게 공부하다 우울증이 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혼자 공부를 하기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하는 방법, 대학교에서 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들을 고민해보았으나, 시간적인 효율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3주정도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공부장소를 옮겼습니다. 1차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시작부터 컨디션관리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휴식도 적당히 취하고 가벼운 운동도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데 힘썼습니다. 다행히도 2차준비때는 별일 없이 공부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종강 후 2차 시험준비 때 공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중요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 골라내기” 였습니다**. 2차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과의 사투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기간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1차때는 전과목을 4~5번 돌리고도 시간이 여유가 있어 시험 직전에는 조금은 지루해지기도 하면서 빨리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2차 준비 때는 3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1차처럼 공부한다면 정말 5과목을 1번 복습하고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보며 약했던 부분들을 미리 표시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는 부분들은 거의 눈대중으로 훑으며 지나갔고 모르는 부분들만 골라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도 출제빈도상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모르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기에 그냥 이해 없이 외웠습니다. 이렇게 아는 부분은 빨리 넘기고 모르는 것에만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면서 공부하니 시험 전에 정확히 3번정도 복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9) 2016년 6월 25~26일 : 2016년 51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 응시 (합격)

2차시험은 첫날에 3과목 둘째 날에 2과목 총 2일동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전과목을 보는 1차시험과는 조금은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둘째 날에 보는 과목들은 정리를 좀 일찍 끝내놓고 시험 하루 전에는 첫날 과목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첫날이 시험이 끝난 후 다음날 시험 전까지의 시간을 미리 계획을 세워 둘째 날 과목을 효율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2차시험을 다 끝내고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과목별 공부방법**

**1차 공부법**

1. 회계학

1차에서 세법과 더불어 과락을 가장 걱정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만큼 어렵기도하고 문항 수에 비해 시간이 적게 주어져 다른 과목들에 비해 시간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회계학은 크게 재무회계, 정부회계, 원가회계로 이루어져있는데 재무회계는 또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먼저 중급회계는 다른 회계과목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면서 회계학에서 차지하는 문항수도 많기 때문에 중요하게 공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재무회계와 세법의 공부법은 수능으로 비유하자면 언수외 공부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해서 감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과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재무회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풀이입니다**. 주변에 보면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문제를 안 푸는 수험생들도 많이 봤는데, 회계를 실무적으로 접한 적도 없고, 회계가 일관된 하나의 논리로 관통하는 학문도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1차는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웬만한 수준의 문제들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이론이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과정이 정형화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의 풀이법을 필기해놓고 똑같이 반복해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급회계는 회를 거듭할수록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2차에서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강의를 듣고 어려워도 꼭 1차때 이해를 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정부회계는 1차때만 나오고 2차때는 나오지도 않고 문제수도 적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버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즘 출제경향으로 보아서는 문제를 쉽게 내서 커트라인이 고득점으로 결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과목이나 일정 부분을 완벽히 버리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강의만 듣고 조금만 복습을 해주면 60~70%는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 버리지 말고 적당한 완급조절로 공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원가회계는 2차때는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되지만 1차때는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비중이 적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2차때는 한 과목으로 나오는 만큼 1차때 소홀히 공부해놓으면 2차때 그 간극을 채우기가 어려워 2차수험기간때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원가회계는 논리가 뚜렷한 과목으로 공식 같은 것을 한번 이해하고 암기해 놓으면 휘발성도 약합니다. 2차를 위해서라도 원가회계 공부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2) 세법

세법은 모든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년 1차시험 당시 계산문제는 하나도 못 풀고 말 문제만 풀어서 42.5점으로 과락을 겨우 면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면 시험보기 전에는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재무회계랑 마찬가지로 문제풀이가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론 법 문구만 읽어서는 실전 문제를 풀기도 힘들고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부분이 나타나면 그에 해당하는 개념을 찾아가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르는 부분을 자주 보게 되고 세율과 같은 세부적인 항목들도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많은 법 문구 중에서도 시험에 잘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도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확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나오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율과 적용기준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들은 1차 종합반이 종강한 후에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을 파악하는데 집중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험 보기 직전까지 외우다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반부터 세율 같은 것을 외우려고 공부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세율 같은 것들은 금방 까먹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등 1차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부분들은 시험에 기출 된 부분을 위주로 중요성을 따져가며 공부하는 것이 범위를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3) 경제학

경제학과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경제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렵지 않은 과목이었지만 많은 주변 수험생들에게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법 경영학과 더불어 고득점을 맞아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핵심과목입니다. 그러나 2차에는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CPA경제학시험은 대학교 학부수준 미시, 거시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데 대학교에서 미시, 거시를 수강한 상태면 도움이 조금 될 것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재무회계나 세법과는 조금 달리 이론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나오는 스타일이 정형화되어 있기보다는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가 나오는 편이라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지만, 문제만 많이 푼 경우에는 유형이 바뀌었을 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념강의를 잘 듣고 개념을 정립한 후 문제풀이를 통한 개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경영학

경제학과 더불어 고득점을 맞아야 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경영학은 크게 일반경영학(70%)과 재무관리(30%)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경영학은 경영학부의 마케팅, 인사관리, 생산관리 등의 과목들을 얕고 넓게 배운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경영학부분에서는 어려워서 이해를 하지 못할 부분은 거의 없지만 내용이 많고 헷갈리는 암기사항들이 많아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구분암기를 잘해서 시험까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또한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1차에만 나오는 부분이지만 난이도는 높지 않아 경제학보다는 시간을 훨씬 덜 소요하는 과목입니다. 경영학에서의 재무관리의 입지는 재무회계의 원가회계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1차때는 비중은 적지만 2차때는 한과목인 과목입니다. 가장 수학적인 과목으로 내용적으로도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 많이들 포기하는 부분인데 1차에서는 많이 깊게 나오는 편이 아니라 쉬운 문제와 중간난이도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이후 2차 재무관리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5) 상법

경영, 경제, 상법 3과목중 가장 득점을 하기 쉽고, 득점을 해야만 하는 과목입니다. 5과목중에 유일하게 계산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는 과목으로 암기만 철저히 한다면 득점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경영학처럼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암기량도 많은 편이기에 일반경영학과 비슷하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법조문을 영어단어장 암기하듯 자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문제 지문이 법조문을 인용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외워둔다면 문제를 풀면서 금방 어색한 지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법전을 구매하지 않고 심유식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객관식 상법책의 지문을 외우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2차 공부법**

1. 재무회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차와 2차의 난이도 격차가 크지 않은 과목입니다. 1차를 꾸준히 잘 공부해왔다면 큰 어려움 없이 2차도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차문제 3~4개를 묶어놓은 덩치 큰 문제를 푸는 느낌으로 집중력을 잃지 않고 긴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고급회계의 비중이 해가 갈수록 늘어남과 더불어 내용자체의 난이도도 높고, 문제집 구성상 가장 뒷부분에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1차때 잘 해놓지 않으면 2차때는 고급회계를 연습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1차때부터 고급회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1. 세무회계

공부했을 때 가장 답답하고 걱정을 했던 과목입니다. 1차때보다 덩치가 커진 긴 문제를 푸는 유형인데, 세법 특성상 하나라도 고려를 안 하거나 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하면 정답이 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문제에 정답을 완벽히 맞추기가 힘들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실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2차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부분점수를 적용하고, 본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험생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겁 먹지 말고 꾸준히 매일매일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회계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풀이과정이 길고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승철, 이승원 선생님이 문제마다 풀어주시는 풀이를 다 필기해서 모아놓고, 혼자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쓴 풀이와 비교하며 선생님이 쓴 풀이와 똑같이 풀도록 연습했습니다**. 1차때와 마찬가지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험에 잘나오는 부분만 연습을 했고, 연결납세제도와 같이 어려우면서 출제확률은 낮은 부분들은 학원에서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이해를 못해서 골라냈습니다. 초반부에는 풀이흐름의 큰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후반부에 집중해서 외우면 좋습니다.

1. 원가회계

재무관리와 마찬가지로 1차때 비중이 적었던 과목이지만 2차가 되면서 중요도가 높아진 과목입니다. 내용자체의 난이도는 1차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문제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문제풀이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가회계는 문제수가 4~5문제로 한문제당 배점이 큰 편인데 그 중 1문제정도는 흔히 말하는 폭탄(어려운)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은 과목입니다. 2016년에도 마지막 문제가 어려웠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적이고 출제가 많이 된 유형을 확실히 맞추는 게 합격에 중요합니다. **저는 수업시간에 김용남선생님이 찍어주시는 문제들만 반복해서 풀었고 찍어주지 않은 문제들은 일절 보지도 않았습니다. 동차때는 선생님께서 찍어주시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유형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재무관리

원가회계와 마찬가지로 2차때 비중이 높아진 과목이고 1차 2차의 난이도가 큰 차이가 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때 재무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2차때 따라가기가 많이 버거운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원가회계와 마찬가지로 폭탄문제가 많이 나오는 과목인데, 2016년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풀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절반에 못 미칠 정도로 새로운 유형도 많이 나와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합격을 해서 놀란 과목입니다. **원가회계와 비슷하게 동차때는 기출에 나왔던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된 유형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워야 할 계산공식도 많고 개념도 어렵기 때문에 1차때와는 달리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1. 회계감사

앞서 서술한 4과목들과는 달리 2차때 처음 배우는 과목입니다. 권오상선생님께서 워낙 잘 가르쳐주시기도 하고, 회계사의 업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과목이라 처음에는 모든 수험생이 가장 흥미 있게 듣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수험생들이 1가지 과목을 포기하라면 포기하는 1순위 과목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내용에 헷갈리는 부분도 많아져서 공부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도 계산문제가 거의 없고 말로 서술하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기보다는 감사기준에 적혀있는 것들을 외워서 적어야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암기과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외워야 하는 내용들이 고등학교시절 윤리과목처럼 들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이야기들을 서술한 내용이 많아서, 막상 들을 땐 이해를 해도 문제를 보고 적기는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감사 과목의 공부법은 수험가에 퍼져있는 ‘감사목차’ 라는 정리된 노트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학원 다니는 3달동안 이동시간에 매일같이 보며 외웠습니다**. 초반부터 많은 노력을 하니 후반에는 오히려 큰 시간을 안 써도 실력이 유지되는 효자 과목이었습니다. 또한 **저의 경우에는 학원 모의고사를 볼 때 빼고는 직접 써가면서 문제를 풀지는 않았습니다. 쓰는 시간이 아까웠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써야 할 내용을 머리 속으로 말을 만들어보고 답을 맞추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4. 합격수기를 마치며**

부족한 글 솜씨로 저의 이야기를 풀어낸 것 같은데, 수험생 분들께서 읽으시면서 공감되는 내용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도 많을 것입니다. 이 합격수기를 읽고 수험생 분들이 자신에게 공감되고 도움이 될 내용이 1~2가지라도 있고 그걸 통해 조금 더 합격에 가까워 질 수 있다면 저는 이 긴 글을 쓴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방법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좋고 효율적인 방법들은 수험생 분들이 듣고 있는 강사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학원 강사님들의 조언 공부법들을 토대로 저만의 공부법을 찾은 것입니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강의를 듣고 좋은 공부방법들을 “알고만”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공부방법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많이 못 봤습니다. 좋은 공부법들을 이용해 실제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자신감, 굳은 의지, 피나는 노력이 함께한다면 수험생 분들의 수험생활에 끝은 좋은 소식이 함께할 것입니다.

★ 노력으로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